

# 멜로장르 TV드라마에 나타나는 여성 주인공의 전형성 (1992년부터 2012년까지)

## Typicality of Female Main Characters Appearing in the TV Melodrama Genre

-From 1992 till 2012-

이화정  
부천대학교

Hwa-Jeong Lee(jung7061@hanmail.net)

### 요약

멜로장르는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살펴 볼 때 여타의 장르보다 여성상 설정에 있어 전형적인 여성상이 재현된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에는 양적인 방법의 연구가 없어 멜로장르의 보수성과 전형성에 대해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TV드라마 멜로장르 여성상의 전형성에 대해서 양적인 연구방법과 전체 장르 여성상과의 비교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TV 멜로장르 여성 주인공은 전체장르 여성상에 비해 그 변화상이 적었다. 전체 장르 여성상이 외모에 있어 비여성성이 증가하였고 타인과의 관계가 능동적으로 변한 반면 멜로장르에서는 전형적인 여성적 외모의 여성과 수동적인 여성상이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여성이 남성의 애인과 아내의 자격으로 남성의 자본을 공유하던 체제에서 여성적인 아름다운 외모는 남성의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여성의 육체자본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력이 향상된 현재에도 멜로장르에서는 유독 전형적인 여성상이 유지되고 있다. 여성 시청자가 주를 이루는 멜로장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여성상의 전형성은 현대 여성들의 양가적이고 모순적인 욕망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 중심어 : | 멜로드라마 | 여성 주인공 | 전형성 |

### Abstract

Advanced research has often discussed that the melodrama genre reproduces typical female image more than any other genre in setting up female image. However, the advanced research is not based on quantitative methods, so it is hard to say that it has verified the conservativeness or typicality of the melodrama genre. This study applies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for the typicality of female image in the TV melodrama genre and intends to prove it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overall genre female image.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 the TV melodrama genre's shows less change than the overall genre female image. About their appearance, the overall genre female image indicates increase of non-femininity and activeness in their relationship with others; however, in the melodrama genre, women with typical feminine appearance and passive female image have been maintained from 1992 till 2012. In the system in which women shared men's capital in their lover or wife's status, their feminine and beautiful appearance was used as women's physical capital that enhances their possibility to be selected by men. Even in the present that women's economic power has been elevated, however, the melodrama genre still maintains typical female image distinctively. Typicality of such female image shown in the melodrama genre of which major viewers are women seems to represent contemporary women's ambivalent and contradictory desire.

■ keyword : | Melodramas | Female Lead | Typicality |

##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방법

멜로장르는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살펴 볼 때 여타의 장르보다 여성상 설정에 있어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고 논의되어 왔다. 멜로장르가 주도하는 이성애적 낭만적 서사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여성의 억압을 영속시키는 이데올로기 장치로 작용한다는 이유 때문이다[1]. 페미니즘과 안티 페미니즘이 공존하고 여성의 주체적인 응시와 욕망의 대상화라는 남성 응시가 동시에 작동하는 양가적인 멜로장르의 특성은 페미니즘 계열의 학자들에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 연구 주제이다. 모듈레스키(Modleski)는 멜로드라마가 여성적 욕망을 표출하는, 완전한 여성성을 드러내는 장르로 인식하여 멜로장르를 시칭하는 여성시청자들의 욕망에 대해 분석을 하였는데 여성이 일반적으로 경협하는 초조함과 죄책감을 멜로장르에 등장하는 남성인물이 겪는 것을 보고 대리만족을 한다고 분석하였다[2]. 그러나 멜로장르 여성상의 보수적 경향과 전형성을 분석한 이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몇 편의 드라마를 대상으로 한 텍스트 분석과 같은 질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질적인 연구방법으로는 멜로장르 여성상의 전형성에 대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멜로장르의 여성상이 전체 드라마 장르에 비해 전형적인 여성상이 재현되는지 분석하기 위해 양적인 연구방법을 선택하여 멜로장르 여성상의 전형성에 대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두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는 멜로장르 여성주인공을 대상으로 그 변화상에 대한 양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연구자의 논문인 드라마 전체 장르 여성 주인공의 변화상에 대한 연구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여 멜로장르 여성상이 선행연구의 분석과 같이 여타의 드라마 장르 여성상보다 전형적인 여성상이 재현되는지, 전형적인 여성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목에서 전형성을 보여주는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논의

### 2.1 열린 서사체로서의 기능을 하는 TV드라마

보들리야르(jean baudri-llard)는 현대 사회에 대해 시뮬라시옹(simulation)이 표방하고 있는 포스트모던 사회라고 정의한 바 있다. 실체가 아닌 복사물이 실체처럼 느껴지는 시뮬라시옹의 시대에서 미디어가 생산해 내는 이미지는 주체가 다변화된 양상을 흡수하도록 영향을 준다[3]. 에코(Eco)는 기표가 기의를 대체한 시뮬라시옹의 시대에 미디어 텍스트의 의미를 다원적으로 보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열린 구조로 바라보자는 견해를 제기되었다. 텍스트의 다의미성을 강조하고 수용자와 텍스트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현대의 텍스트들은 과거에 비해 많은 양의 정보들을 갖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은 예측 가능성과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러한 텍스트가 사회내의 담론을 가능하게 할 때 담론은 단수가 아닌 복수의 형태인 다담론성을 배양하게 되고 이러한 텍스트들은 다시 열린 서사체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4]. 현대 사회에서 열린 서사체로서 기능을 하는 TV드라마 속 여성 캐릭터는 현대여성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며 교환되거나 대치되는 양상을 보인다. 정체성의 문제를 거론할 때 주체를 비추는 타자의 역할이 필요한데 TV드라마가 현대 여성들을 비추는 타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는 TV드라마가 단지 제작자의 의도를 수용자에게 전달한다는 의견에 반하는 주장으로 TV드라마가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상호 교류되어 담론으로 전환되면서 시청자와 상호 교류하게 된다는 주장이다[5]. 예를 들면 기존의 드라마를 통해 가부장제의 억압을 경험했던 여성수용자라면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저항하여 자신의 욕망을 드러낼 수 있는 판타지를 꿈꾸게 된다. 텔레비전 드라마에는 여성들이 꿈꾸는 판타지(Fantasy)라는 힘이 존재한다. 임옥희는 이러한 판타지에 대해 실재하지 않기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시(可視)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어서 시선이 가진 권력을 비틀고 일탈하는 전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6]. TV드라마의 판타지로서 가지는 전복적 성격은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다. 라강은 주체구성과 환상의 관계에 있어서 상실된 것을 보완하려는 욕망이 현실을 대체한다고 얘기한 바 있다[7]. 시청자들이 꿈꾸는 판타지는 시청자와 드라마 텍스트를 상호교감하게 만들고 이러

한 드라마 텍스트와 수용자 사이에는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며 이러한 행동들이 결국 현실의 성 질서를 전복할 수 있는 힘을 획득하며 여성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 나아가게 된다. IPTV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청자와 상호 교감하는 현대사회의 TV매체는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이 갖고 있는 판타지를 신속하게 등장인물에 재현한다. 인터랙티브(interactive)한 매체를 통해 시청자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 또한 이를 콘텐츠에 반영해 내러티브를 수정하는 일은 이미 일상화 되어 있다. 2009년에 방영된 SBS드라마 <스타일>은 드라마 홈페이지의 시청자 게시판에 영향을 받아 원작에서 예정된 이서정의 이지아와 서우진의 멜로라인을 박기자 역의 김혜수와 서우진의 멜로라인으로 바꾼바 있다. 드라마의 주요 내러티브를 시청자들의 판타지를 채우기 위해 바꾼 것이다. 착하긴 하지만 남성에게 의존적이고 능력 없는 이서정의 캐릭터 보다 능력 있고 모든 일에 자기 주도적이고 문제해결 능력이 탁월한 박기자가 당대의 시청자들에 호감을 얻었기 때문이다[8]. 이러한 TV드라마 제작환경의 변화양상은 텔레비전 드라마가 현대 여성들의 정체성을 논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2.2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성상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TV드라마의 여성이미지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한국에 여성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부터 활발히 진행되었다. 여성재현 연구의 경향은 현상에 관한 사회과학적 접근인 대중매체의 성역할 연구와 비판주의와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영향을 받은 여성이미지에 대한 의미화 연구로 크게 나눌 수 있다[9]. 여성재현의 의미화 연구로는 미디어에 나타나는 성 차별적인 여성 이미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성이미지 재현에 담긴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문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의미화 연구의 초창기에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성의 표상과 성역할에 관해 의의를 제기하며 가부장적 사회에 여성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1991년대에 발표된 오혜란, 이은진의 연구, 1994년에 발표된 김남희의 연구, 1995년의 한정자의 연

구, 1995년의 윤기성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한정자의 연구를 보면 여성의 대부분은 가정주부로 설정되어 있고 인간관계 역시 가족관계에만 편중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남성에 비해 순종적이고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며 남성보다 열등하게 묘사된다고 분석한다[10]. 2000년대에도 역시 다수의 연구에서 드라마속 여성캐릭터가 가부장적 남성의 시선에 종속된 불평등한 이미지가 존재한다고 분석한다. 2000년도에 발표된 박혜진, 윤정주의 연구, 2001년의 박정숙의 연구 2009년의 홍지아의 연구등이 있다. 이러한 질적 연구들은 그 특성상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여성상을 분석하므로 같은 드라마의 여성상을 분석하더라도 그 결과가 상이하게 되는 주관적 논점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질적 연구들은 특정한 시대의 여성상을 논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해 주는 성역할에 관한 양적 연구는 미디어가 시대의 담론의 장으로써 열린 서사체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터크만 역시 같은 맥락에서 미디어와 사회적 영향간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터크만은 성역할과 관련하여 미디어는 얼마간의 문화지체는 있지만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태도를 반영한다고 주장 한다[11]. 성역할 연구는 텔레비전에 재현되는 남성상과 여성상에 대한 질량적 분석, 즉 빈도수, 특성, 유형화 등을 연구하게 된다. 이런 연구들은 미디어에 반영된 여성상이나 남성상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80년대와 90년대의 성역할 연구들은 가부장적 남성의 시선에 종속된 불평등한 여성이미지가 존재한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2000년대에 이르러 TV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성의 성역할이 보다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재현된다고 분석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김명혜는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나타난 진보적인 여성성향에 대해 유형화하였다[12]. 정기현은 외적인 미를 추구하는 여성의 증가와 전문직업을 가진 여성, 독립적인 여성, 자유분방한 여성등 비전통적인 여성상이 증가하고 가정주부의 역할을 하는 전형적 여성의 감소현상을 분석하였다[13]. 서숙영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의 인구학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 성격을 분석하였으며 수용자 설문조사를 통

해 여성상의 적극성, 능동성, 진취성이 향상되었고 사회적 지위 또한 향상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14]. 김순기는 2000년 이후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여성주인공의 특성을 방송년도 별로, 드라마 세부장르별로 분석하였다[15]. 이화정은 1992년부터 2011년까지 TV드라마에 재현된 여성주인공의 여성상 유형의 변화상에 대해 조사한 바 있으며[16] 멜로장르에 나타나는 여성 악역의 유형 변화를 분석한 바 있다[17].

### 2.3 멜로장르의 여성상

멜로장르에 대한 페미니스트 계열 이론가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멜로장르가 가부장 체제의 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멜로장르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이 남성의 시각적 쾌락을 만족시키는 기재로 작동한다고 보고 있다. 도앤(Doane)은 멜로장르를 시청하는 여성은 여성등장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동일시가 불가능하고 남성을 매개로 남성의 위치에서 여성 인물을 향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한다. 멜로장르의 여성인물들이 남성등장인물과 남성관객의 시각적 쾌락을 위한 객체로써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윤금은 멜로장르에 ‘이성애적 낭만적 사랑’ 서사구조의 모순성과 남성 중심성을 주장하였다. 즉 낭만적 사랑의 서사구조는 착한 여성 즉 남성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여성에 대한 선호와 미화를 통해서 사랑이 왜곡된다. 여성은 착한 여성을 내면화하여 낭만적 사랑의 준거 틀로 삼게 된다. 결과적으로 멜로드라마가 주도하는 이성애적 낭만적 서사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여성의 억압을 영속시키는 이데올로기 장치라고 확인하였다[18]. 윤선희는 멜로장르의 여성상은 남성의 욕망이 전이되어 재현되었다고 분석하였다[19]. 이재경은 멜로장르는 이른바 ‘정상가족’을 신성시함으로써 가부장제의 체제유지에 기여하며 이에 따른 여성 억압을 지속시킨다고 비판한 바 있다. 멜로장르는 이렇게 타 장르에 비해 여성상 재현에 있어 전형적인 여성이 재현된다는 연구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멜로장르 여성주인공의 전형성에 대한 다양한 질적인 연구들이 존재하는 데 반해 멜로장르 여성 주인공에 대한 양적인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표 1]은 선행연구에서 분석되는 여성 성역할의 전형성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여성역할의 전형성 항목

Hebrun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정다운, 없는 것을 갖고 싶어 하지 않고 현실 그대로를 만족하고 있는, 협력적인, 의존심이 강한, 감정적인, 흥분하기 쉬운, 자신감 결여로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여성적인, 변덕스러운,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친절함, 성실하지 않은, 남을 위한 일을 마다하지 않는, 소극적인
Sheila	수동적, 심약함, 약함, 자기 표현적, 의지박약, 감정적, 의존적, 겸손함, 정숙함, 순수함 또는 수용적, 성적 능력이 약함

### 3. 연구문제

멜로장르 여성상의 전형성과 변화상은 주 시청층인 현대여성의 정체성 문제에 해당되는 양가적 감정과 판단지를 읽을 수 있는 주요 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제에 대해 질적인 연구만이 존재할 때 멜로장르 여성상의 보수성에 대해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질적인 연구는 드라마 몇 편의 분석에 국한 될 수밖에 없고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보여 지는 멜로장르의 전형성에 대해 양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검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멜로장르가 여타의 장르에 비해 전형적인 여성상이 재현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멜로장르 여성상의 변화와 전체장르 여성상의 변화를 비교하여야 한다. 다양한 유목들을 선정해 볼 수 있겠으나 전체장르 여성상의 변화와 비교해보기 위해 연구자의 2011년 논문에서 전체장르 여성상을 분석한 분석유목을 가지고 멜로장르 여성상의 변화를 분석해 볼 것이다.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시대에 따라 멜로장르 여성주인공의 여성상은 유목별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전체장르 여성의 변화상과 멜로장르 여성의 변화상은 어떠한 유목상의 차이가 있는가?

### 4. 연구 방법

#### 4.1 분석 대상

4.1.1 분석시기

1990년대 이전 한국 TV드라마의 제작환경은 언론기 본법에 의해 국가에 통제를 받던 시기였다. 국가정책의 홍보수단으로 TV드라마가 사용되고 드라마의 소재와 내용을 정부가 적극 개입하던 시기이다[20]. 그러나 1990년 9월 1일로 언론통제의 법적 장치였던 언론기 본법이 폐지되었다. 1993년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동안 외적 요인에 의해 드라마에서 취급되지 못했던 다양한 소재들이 대거 등장하게 된다. 특히 1992년부터 드라마를 제작하기 시작한 상업적 민영방송국 SBS의 시작은 방송환경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오명환(1994), 김선열(1999), 김승현(2001), 정영희 (2005)등의 학자들은 보고 있다. 상업적 민영방송의 등 장은 방송사 간의 시청률 경쟁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시청자의 문화적 욕구를 고려하고 심리적으로 동일시 를 할 수 있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계기가 되며 TV드라 마가 열린 서사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 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과거 시청률 조사 자료는 AGB 닐슨 미디어에서 조사한 1992년부터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분석시기를 1992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로 한정하였다.

4.1.2 분석드라마

열린 서사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다양한 담론을 양산 하는 장으로서 TV드라마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정부 분 높은 시청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양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1992년부터 2012년 까지 같은 시청률을 기준으로 분석하기에는 문제가 존 재한다. 이에 따라 2005년 이전은 전체 시청률 100위 드 라마 중 멜로장르를 선별하였고 2005년 이후에는 시청 률 상위 20% 이상인 멜로장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1]. 이는 연구자가 전체 드라마의 여성상을 분석한 분 석대상 선정과 같은 조건이다. 자료제공은 AGB닐슨미 디어리서치: 분석기간 1992년 1월 1일~2004년 12월 31 일)평균시청률 순의 집계 상위 100위안에 드는 멜로드 라마, TNS KOREA: 분석기간 1992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시청률 20%이상인 멜로장르 드라마로 여 성주인공은 [표 2]에서 보이는 74명이 선정되었다.

표 2. 분석대상 여성주인공

1992-2004		2005-2012		
남자 주인공	드라마 명	남자 주인공	드라마 명	
1	최은서	가을동화	41 신채경	궁
2	윤자영	노란손수건	42 금잔디	꽃보다 남자
3	장미영	두번째 프로포즈	43 김삼순	내이름은 김삼순
4	양순	명랑소녀 성공기	44 주유린	마이걸
5	한혜원	미스터 Q	45 이수정	발리에서 생긴일
6	연이	별은 내 가슴에	46 길라임	시크릿 가든
7	은주	보고 또 보고	47 진수	식객
8	김지현	불꽃	48 단사란	신기생면
9	강태우	사랑과 성공	49 고다경	싸인
10	이진주	사랑을 그대에게	50 최성희	아이리스
11	봉선화	사랑해 당신을	51 고병희	여우야 뭐하니
12	영숙	서울의 달	52 오송아	온에어
13	장혜진	신데렐라	53 정민주	유리의 성
14	이경	애인	54 서주희	쩐의 전쟁
15	장여경	엄마야 누나야	55 고은성	찬란한 유산
16	유림	예감	56 구애정	최고의 사랑
17	선우	유리 구두	57 고은찬	커피프린스 1호점
18	선미	이브의 모든것	58 신도영	태양의 여자
19	임차희	젊은이의 양지	59 강태영	파리의 연인
20	자영	진실	60 한지은	풀 하우스
21	하경	질투	61 이자경	하늘이시여
22	이효경	첫사랑	62 이지연	행복한 여자
23	서윤희	청춘의 덫	63 조안나	환상의 커플
24	이한이	토마토	64 차수경	히트
25	진희	폭풍의 계절	65 최미자	올드미스 다이어리
26	한수현	해바라기	66 진차연	내 사랑 못난이
27	진수아	해피투게더	67 홍준표	내 남자의 여자
28	정인	약속	68 봉달희	외과의사 봉달희
29	최진실	우리들의 천국	69 오달자	달자의 봄
30	신경애	두려움 없는 사랑	70 박기자	스타일
31	혜민	모래위의 욕망	71 오은수	달콤한 나의 도시
32	채원	아들의 여자	72 이봉이	웃어라 동해야
33	정다슬	마지막 승부	73 서이수	신사의 품격
34	전인화	이 남자가 사는 법	74 한채원	별도 달도 따줄께
35	민주	복수 혈전		
36	연희	햇빛 속으로		
37	김영옥	그 여자네 집		
38	안선녀	여우와 솜사탕		
39	민수현	올인		
40	한정서	천국의 계단		

4.2 분석방법

4.2.1 여성상 분석 유목

2011년 전체장르 여성의 변화상과 비교분석을 위해 다양한 선행연구의 분석유목을 종합하고 보완한 2011 년 전체장르 여성상을 분석한 분석 유목표를 가져와 멜 로장르 여성의 변화상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였다[22]. 여성상 분석 유목은 기술적 분석 유목과 특성 분석 유 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기술적 분석 유목에는 여성 주

인공의 연령, 결혼 유무, 직업, 경제적 수준, 사회적 신분 수준의 5항이 있고 특성분석 유목은 성격, 외형적 특성, 커플유형, 성의식, 문제해결방법, 타인과의 관계의 6항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N수의 부족이 통계적 유의성을 상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분석유목을 2항씩으로 나누었다. 분석유목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술적 분석 유목의 항목인 연령은 홍지아(2010)의 연령구분을 수정 보완하여 20대, 30대의 2항으로 나누었다. 결혼유무는 미혼과 기혼의 2항으로 나누었다. 직업은 양문화 강영철(2005)과 김순기(2010)의 분석유목을 수정 보완하여 전문 관리 경영직과 그외의 2항으로 나누었다. 전문관리 경영직에는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교수, 언론인, 재벌, 대기업, 경영진 임원급, 중간관리자가 이에 속한다. 경제적 수준은 홍지아(2009)의 분석유목을 참고하여 상과 그 외의 2항으로 구분하였다. 경제적 수준 상은 50평 이상의 아파트, 입주 가정부가 있는 생활, 2층 주택, 호화 가구, 개인 사업, 국회의원등의 고위공무원이나 재벌, 준 재벌을 포함하며 그 외에는 중에 해당하는 30평 정도의 아파트, 단독주택, 가정부가 없거나 경우에 따라 시간제 도우미 사용, 사무직이나 소규모 개인사업자와 하에 해당하는 임대아파트, 적은수업이 다세대 가족, 극빈자가 포함된다. 사회적 신분 수준은 피그리 등을(Pingree et al, 1976) 참고하여 수준 1, 2, 3은 수준낮음으로, 수준 4, 5는 수준 높음의 2항으로 구분하였다. 수준1은 여성을 장식적 역할로 묘사, 수준2는 여성을 가정과 같이 전통적인 직종에 종사하는 역할로 묘사, 수준3은 전문직 여성상으로 묘사되더라도 가정을 더 중요시하게 묘사, 수준 4는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묘사, 수준5는 남성과 여성을 각각의 독립된 개체로 묘사가 해당된다. 특성분석유목에 해당하는 성격유목은 홍지아(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유순, 성실, 유아적, 헌신적, 비사교적을 온순의 항목으로 가집, 폭력, 고집의 항목을 강함의 항목으로 2항으로 나누었다. 외형적 특성은 홍지아(2010)의 분석유목을 수정하여 여성적외모, 비여성적/중성적 외모의 2항으로 나누었다. 여성적 외모는 순수한 여성적 외모와 치장형의 여성적 외모가 포함되며 비여성적/중성적 외모는 성별을 구분하기 어려운 옷차림이나 바지

차림이 해당된다. 커플유형은 김명혜(2006)의 유목을 참고하여 연하녀/연상남 과 동갑, 연상녀/연하남의 2항으로 나누었다. 성의식은 석숙영(2006)의 분석을 참고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당당히 드러내는 여성을 개방적으로 성적 욕망을 부인하고 숨기며 순수한 이미지를 내세우거나 중도형을 보수형으로 구분하였다. 문제해결방법은 윤선희(2005)의 연구를 참고하여 문제 발생시 남성이나 다른사람에 의해 문제를 해결함 받는 유형을 타인의존형, 스스로 해결하는 유형을 자기주도형의 2항으로 나누었다. 타인과의 관계는 한은경(2003)의 유목을 참고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유형인 동등하거나 주도적과 타인과의 관계가 보조적이고 부수적인 수동적의 2항으로 나누었다.

표 3. 여성상 분석유목

	유목	내용	출처
기술적 분석 유목	연령	1.30대 이상. 2. 20대	홍지아(2010) 수정보완
	결혼 유무	1.미혼 2.기혼	Gilly(1988) 수정보완
	직업	1. 전문 관리 경영직 2. 그 외	양문화 강영철(2005)
	경제적 수준	1. 상 2. 그 외	홍지아(2009)수 정 보완
	사회적 신분 수준	1. 수준 낮음(수준 1,2,3) 2. 수준 높음(수준 4,5)	Pingree, Hawkins, Butler&Paisley (1976) 수정 보완
특성 분석 유목	성격	1. 온순 2. 강함	홍지아(2009) 수정보완
	외형적 특성	1. 여성적 외모 2. 비여성적 외모	홍지아(2010)
	커플유형	1.연하녀/연상남 2. 동갑, 연상녀/연하남	김명혜(2006) 수정 보완
	성의식	1. 보수적 2. 개방적	석숙영(2006) 김명혜(2006) 수정 보완
	문제 해결 방법	1. 타인 의존 2. 자기 주도	윤선희(2005) 수정 보완
	타인과의 관계	1. 수동적 2. 동등하거나 주 도적	한은경(2003) 수정보완

4.2.2 코더간 신뢰도

코딩기간은 2012.7.2일부터 7일까지였고 연구자를 포함한 한명의 코더가 코딩작업을 수행하였다. 코더 간 신뢰도는 89%였다. 이후 분석에 있어서 오차가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합의를 이루는 작업을 통해 통계오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분석대상인 74편

의 드라마를 각각 반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 4.2.3 통계방법

분석대상 드라마의 1, 2회 방영분을 시청한 후에 여성상 유형을 분류하였고 1, 2회분에서 여성주인공의 유형이 분석되지 않을 시에는 여성상이 구체화 되는 시점까지 시청을 지속하였다. <연구문제1>은 명목변수이므로 단순 분석(univariate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단순분석에는 교차분석(Chi-square test)과 피셔의 정확검정법(Fisher's exact test)을 사용하였다. 유의수준은 5%(P value = 0.05)로 검증하였고 오즈비(odds ratio)와 95% 신뢰구간을 함께 표시하였다. <연구문제2>는 연구문제 1에서 나온 데이터와 전체장르 여성상에 대한 연구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 5. 분석 및 분석 결과

### 5.1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 결과

<연구문제 1> : 시대에 따라 멜로장르 여성주인공의 여성상에는 변화가 있는가?

멜로장르의 여성주인공은 총 4개의 유목에서 변화가 있었다. 연령, 사회적 신분 수준, 커플유형, 문제해결방법에서  $P < .05$ 의 유의미한 변화상이 검증되었다. 결혼 여부와, 직업, 경제적 수준, 성격, 외형적 특성, 성의식, 타인과의 관계유목은 변화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시청률 상위에 위치한 멜로장르 여성주인공의 변화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에서 30대 이상이 10배 가량 증가하였다(오즈비 10.39%; 95%신뢰구간 3.40-31.75).

둘째, 여성에 대한 사회적 신분 수준이 20배 가량 증가하였다(오즈비 20.70%; 95%신뢰구간 5.80-73.87). 사회적 신분수준은 피그리(Pingree)가 정리한 남녀 평등에 관한 수준을 5단계로 나눈 것이다. 2005년 이후 증가한 사회적 신분 수준은 수준 4(여성은 동등함, 여성은 전문적인 존재로 대우함, 집이나 아이를 보살피는 가정일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음. 남자도 여성처럼 집안일을 할 수 있음)와 수준 5(고전관념이 없음, 여성은 어떤 분야에서는 남성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성별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음. 여성은 전통적으로

남성스럽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할 수 있으며 남성도 전통적으로 여성스럽다고 생각되는 것을 행동할 수 있음)에 해당되는 여성주인공이 대폭 증가하였다.

셋째, 멜로장르 여성 주인공의 연상녀, 연하남 커플유형이 2005년 이후 9배 가량 증가하였다(오즈비 9.09%; 95%신뢰구간 1.84-44.70). 2005년 이후 증가한 연상녀, 연하남 커플은 여성의 경제력 상승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가부장 사회에서는 여성의 나이가 갖는 정치적 의미가 있었다. 경제력이 남성에게 의존하던 시대에는 경제적 안정을 얻기 위해 보다 안정된 연상의 남성을 원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여성의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남성선택에 있어서 나이에서 보다 자유로워진 모습을 보이며 이성 관계에서 보다 수평적인 관계를 용납하는 사회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넷째, 문제해결 방법이 자기주도적인 여성이 17배 가량 증가하였다(오즈비 17.22%; 95%신뢰구간 4.48-66.23).

### 5.2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 결과

<연구문제 2> : 전체장르 여성의 변화상과 멜로장르 여성의 변화상은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가?

우선 전체장르 여성상은 30대 이상의 증가, 여성의 사회적 신분수준의 높아짐, 비여성적인 외모증가, 연상녀 연하남, 동갑커플의 증가, 문제해결방식이 자기주도적인 유형의 증가, 타인과의 관계가 능동적인 여성상이 증가하여 전체 11개 유목중에서 6가지 유목이  $p < .05$ 의 유의미한 변화상을 보였다. 이와 비교하여 멜로장르 여성상은 30대 이상의 증가, 사회적 신분수준이 높아짐, 연상녀, 연하남 커플의 증가, 문제해결 방식이 자기주도적인 유형의 증가로 총 4가지의 유형에서  $p < .05$ 의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 전체 장르 여성상에 비해 변화상이 적은 것을 알수있다. 이는 멜로장르가 전체장르 드라마에 비해 여성상 재현에 있어 전형적인 여성상이 재현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멜로장르에서 전체적인 여성상에 비해 전형적인 여성상이 나타나는 유목은 외모와 타인과의 관계 유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장르 여성상이 여성의 외모에 있어서 여성

적인 외모가 사라지고 성별을 구분하기 어려운 비여성적 외모의 여주인공이 12배 가량 증가한 반면 멜로장르의 여성상은 2005년 이전이나 이후의 변화가 없이 여성적 외모의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여성적 외모는 치장형의 외모와 자연미인형의 외모를 포함하는 유목으로 전체적으로 날씬한 체형에 상냥한 말투, 화려한 옷으로 외모를 치장한 유형과 수수한 자연미인형을 포함한다. 전체장르 여성상에서도 여성적인 외모가 다수를 차지하긴 하지만 비여성적인 여성이 12배 가량 증가하여 2005년 이후에는 전체 여성의 24%를 차지하게 되는 증가폭을 보여주는 유목에서 멜로장르 여성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여성적인 외모의 여성주인공이 유지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타 장르보다 멜로장르에서 여주인공의 여성적 외모가 더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쉐링(Shilling)은 사회적 지위와 자본이 남성에게 의해 독점되고 여성은 남성의 애인과 아내의 자격으로 남성의 자본을 공유하는 체제에서 여성의 몸은 남성의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육체자본으로 활용되는데 남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성의 몸은 일정한 기준으로 측정 가능한 전형적인 날씬한 몸매의 여성적 외모가 요구 되었다고 분석 한 바 있다[23]. 그러나 여성의 경제력이 향상된 현대에도 멜로장르에서는 유독 여성적인 외모가 중시되는 전형적인 여성상이 재현된다.

둘째 타인과의 관계 유목에서 전체장르의 여성상은 능동적인 여성상이 5배 가량 증가한 것에 비해 멜로장르 여성상은 2005년 이전과 이후 변화 없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수동적인 여성상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타인과의 관계가 보조적이며 관음적 시선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멜로장르 여성주인공에서는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김명혜, 김훈순은 TV드라마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여성상을 유형화하였는데 타인과의 관계에서 수동적인 여성상이 전형적인 여성상이라고 분석하 바 있다[24]. 전형적인 여성상 항목인 타인과의 관계에서 수동적인 경향이 멜로장르 여성주인공에게는 여전히 나타나 있었고 멜로장르가 타장르에 비해 전형적인 여성상을 재현하는 보수적인 장르임을 알 수 있었다.

표 4. 전체장르 여성 주인공 유형 빈도

년도 (N)	1992-2004 (79명)	2005-2012 (74명)	오즈비 (95% 신뢰구간)	P-value
연령(30대 이상)	26명 (32.9%)	42명 (56.8%)	2.68 (1.39-5.16)	<b>0.003</b>
결혼(미혼)	54명 (68.4%)	53명 (64.9%)	1.17 (0.60-2.29)	0.647
직업(전문 관리 경영직 외)	10명 (12.7%)	17명 (23.0%)	2.06 (0.87-4.85)	0.227
경제적 수준 (중, 하)	66명 (83.5%)	57명 (77%)	1.51 (0.68-3.39)	0.253
여성의 사회적 신분 수준 (수준 높음)	13명 (16.5%)	44명 (59.5%)	7.45 (3.50-15.83)	<b>0.001</b>
성격(온순)	74명 (82.8%)	57명 (77%)	1.17 (0.54-2.54)	0.683
외형적 특성(비여성적)	2명 (2.5%)	18명 (24.3%)	12.38 (2.76-55.51)	<b>0.001</b>
커플유형(연상녀)	4명 (5.1%)	21명 (28.4%)	7.43 (2.41-22.90)	<b>0.001</b>
성의식(보수형)	68명 (86.1%)	63명 (85.1%)	1.08 (0.44-2.66)	0.868
문제해결 방법(자기주도)	34명 (43.0%)	67명 (90.5%)	12.67 (5.17-31.06)	<b>0.001</b>
타인과의 관계(주도적)	38명 (48.1%)	61명 (82.4%)	5.06 (2.41-10.65)	<b>0.001</b>

표 5. 멜로장르 여성 주인공 유형 빈도

년도 (N)	1992-2004 (40명)	2005-2012 (34명)	오즈비 (95% 신뢰구간)	P-value
연령(30대 이상)	6명 (15.0%)	22명 (64.7%)	10.39 (3.40-31.75)	<b>0.000</b>
결혼(미혼)	31명 (77.5%)	28명 (82.4%)	1.36 (0.43-4.29)	0.605
직업(전문 관리 경영직 외)	36명 (90.0%)	26명 (76.5%)	2.77 (0.75-10.18)	0.116
경제적 수준 (중, 하)	35명 (87.5%)	30명 (88.2%)	0.93 (0.23-3.79)	0.923
여성에 대한 사회적 신분 수준(수준 높음)	4명 (10.0%)	23명 (69.7%)	20.70 (5.80-73.87)	<b>0.000</b>
성격(온순)	34명 (85.0%)	25명 (73.5%)	2.04 (0.64-6.47)	0.221
외형적 특성(비여성적)	3명 (7.5%)	6명 (17.6%)	0.38 (0.09-1.65)	0.286
커플유형(연상녀)	2명 (5.0%)	11명 (32.4%)	9.09 (1.84-44.70)	<b>0.002</b>
성의식(보수)	35명 (87.5%)	30명 (88.2%)	0.93 (0.23-3.79)	0.923
문제해결 방법(자기주도)	15명 (37.5%)	31명 (91.2%)	17.22 (4.48-66.23)	<b>0.000</b>
타인과의 관계(수동)	27명 (67.5%)	19명 (55.9%)	1.64 (0.64-4.23)	0.304

## 6. 결론

본 연구는 멜로장르의 여성상이 전체 드라마 장르 여성상에 비해 전형적인 여성상이 재현되는 지 분석하기 위해 양적인 연구방법을 선택하여 멜로장르의 전형성에 대해 검증한 연구이다. 검증 결과 멜로장르는 전체 장르 여성주인공에 비해 그 변화상이 적었다. 30대 이상의 연령증가와 연상녀, 연하남 커플의 증가현상, 사회적 신분수준의 향상과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여성의 증가현상은 선행연구를 통해 전형적인 여성상이 재현된다고 알려진 멜로장르 여성상이 주체적인 변화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체장르 여성상이 외모에 있어 비여성성이 증가한 반면 멜로장르 여성상은 여성적 외모가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또한 전체장르 여성상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능동적으로 변한 반면 멜로장르에서는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수동적인 경향이 유지되고 있었다. 여성의 경제력이 향상된 현 시점에서 멜로장르에 나타나는 가부장적 시대의 전형적인 여성유목인 여성적 외모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수동성은 멜로장르의 주 시청층이 현대의 젊은 여성들이라는 것을 살펴볼 때 현대 젊은 여성들이 갖고 있는 양가적인 욕망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페미니즘의 감수성이 자리 잡지 못한 현대 한국 여성의 정체성은 여성의 주체적인 응시와 욕망의 대상화라는 남성 응시가 동시에 공존하는 양가적인 특징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멜로장르의 전형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 그 대상이 여성주인공에 한정된 데에 있다. 드라마가 다양한 여성 인물과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동일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멜로장르의 전형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 여성주인공에 한정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이며 향후 전체 여성인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멜로장르가 전형적인 여성상이 유지된다는 질적인 연구를 양적으로 검증하여 뒷받침한 데에 있다.

## 참 고 문 헌

- [1] 하윤금, “멜로드라마의 이성애적 서사구조에 대한 해석 <청춘의 덫>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

연구, 창간호, 1999.

- [2] T. Modleski, *Loving with a Vengeance: Mass Produced Fantasies for Women*, Archon Books, 1982), 1982.
- [3] J. Baudrillard, *The Precession of Simulacra, Simulacra and Simulation*, Univercity of Michigan Press, 1994.
- [4] Eco, U 1989, 조항준 역, *열린 예술작품: 카오스의 시학*, 새물결, 1995.
- [5] 장주혜, *TV드라마에 나타난 여성의 정체성 담론 연구 <Sex and the City> 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4.
- [6] 임옥희, “환상, 그 위반의 시학”, *여성이론*, 제2호, 2000.
- [7] Lacan, Jacque, 1949, 권택영 역,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p.30, 1994.
- [8] 이화정, “에로틱한 여주인공에 대한 여성 수용자의 욕망 - 칙릿 드라마 <스타일>을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제24권, 제1호, p.74, 2011.
- [9] 이화정, *한국 TV드라마에 재현된 여성 주인공의 여성상 유형 연구*, 홍익대학교 영상학과 박사학위논문, p.11, 2011.
- [10] 한정자, 김양이, 이춘하, 김이선, “여성의 대중매체 수용의식 개발 프로그램-텔레비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p.31, 1995.
- [11] G. Tuchman, “Women’s depictions by the mass media,” *Sign* 4, 3, Spring, pp.528-542, 1979.
- [12] 김명혜,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 대한 여성 수용자의 해독과 일상적 실천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6권, 제2호, 2006.
- [13] 정기현, “한국 텔레비전 광고에 나타난 젠더 표상의 변화에 관한 연구”, *미디어, 젠더&문화*, 제8권, 2007.
- [14] 서숙영, *TV 드라마 속 여성상에 관한 연구: 2000년 이후 주요 드라마를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15] 김순기, *2000년대 한국 드라마에 나타난 여성 주*

인공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 [16] 이화정, 한국 TV드라마에 재현된 여성 주인공의 여성상 유형 연구, 홍익대학교 영상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 [17] 이화정, “멜로 드라마에 나타나는 여성 대립자 유형의 변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0호, 2012.
- [18] 이화정, 한국 TV드라마에 재현된 여성 주인공의 여성상 유형 연구, 홍익대학교 영상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 [19] 윤선희, “신데렐라 콤플렉스의 역 전이와 코라 - 페미니즘 정신분석학의 시각에서 텔레비전 드라마 다시 읽기”, 한국언론학회, 제29권, 제2호, 2005.
- [20] 김승현, 한진만, 한국사회와 텔레비전 드라마, 한울아카데미, pp.79-118.
- [21] 이화정, 한국 TV드라마에 재현된 여성 주인공의 여성상 유형 연구, 홍익대학교 영상학과 박사학위논문, pp.50-52, 2011.
- [22] 이화정, 한국 TV드라마에 재현된 여성 주인공의 여성상 유형 연구, 홍익대학교 영상학과 박사학위논문, p.61, 2011.
- [23] C. Shilling, 임인숙 역, *The Body and Social Theory*, 1993, 몸의 사회학, 나남출판사, 1999.
- [24] 김명혜, 김훈순, “여성이미지의 정치적 함의: 텔레비전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 제39권, 1996.

저 자 소 개

이 화 정(Hwa-Jeong Lee)

정회원



- 1998년 2월 : 홍익대학교 동양화과(미술 학사)
  - 2001년 2월 : 홍익대학교 동양화과(미술학 석사)
  - 2012년 2월 : 홍익대학교 영상학과(미술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부천대학교 겸임교수
- <관심분야> : 방송미디어 콘텐츠